

취미가 직업이 된 아키비스트

김달진 | 한국미술정보센터 관장

학력 _ 서울산업대학교 금속공예과 졸업 (1993)
_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졸업 (1999)

경력 _ 월간 전시계 기자 (1978 ~ 1981)
_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근무 (1981 ~ 1996)
_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 (1996 ~ 2001)
_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 (2001 ~ 현재)
_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편집인 (2002 ~ 현재)
_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 (2008 ~ 현재)
_ 한국미술정보센터 관장 (2010 ~ 현재)

김달진 미술연구소 소장은 직업이 다양하다. 한국 미술센터와 미술연구소의 소장이며 미술 자료박물관의 관장이다. 무가지인 《서울아트가이드》를 발간하고 있으니 잡지사 사장이기도 하다. 호칭이 어찌 됐든 그는 아키비스트이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품 외의 모든 것을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작품을 만들 때 썼던 스케치, 드로잉, 화구도 포함된다. 도록이나 팸플릿, 리플릿은 물론이고, 초청장이나 심지어 주최 측과 맺었던 계약서나 영수증 등도 값진 자료다. 이런 아카이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전문가가 바로 아키비스트다.

취미에서 직업으로

김달진 소장은 어릴 때부터 수집광이었다. 담뱃갑, 껌 상표, 우표 등을 모으다가 잡지에 나온 세계 명화를 모으면서 미술 자료 수집이 시작됐다. 주로 칼라 화보나 미술 전집에 인쇄된 화보밖에 볼 수 없어서 점점 호기심이 증폭됐다. 그러다가 서양 미술사 흐름을 스크랩 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본인이 좋아서 한 일이었다.

“1972년도 고3때 경복궁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 근대미술 60년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달라졌다. 김 소장이 관람한 전시는

1900년인 조선 시대 말에서 1960년까지 60년간을 보여준 국가적 차원의 미술품 전시였는데, 작가에 대한 자료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탓에 김 소장은 우리나라 근현대 작가의 작품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이때부터 그는 청계천 6·7·8가로의 헌책방에서 화보를 뜯어다 낱장을 구매하면서 미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스물한 살이었던 청년 김달진은 스크랩한 모음집을 가지고 당시 이경성 홍익대학교 박물관장을 찾아간다.

“그간 모아둔 자료를 바리바리 싸가서 이 관장에게 보여주니까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인연은 1981년 이경성 관장이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역임할 때 김달진 소장을 스카우트하는 계기가 된다. 김 소장은 편지를 써서 이 관장에게 미술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김 소장은 임시직인 일용 잡급으로 당시 급여인 4,500원을 받고 15년간을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일했다.

“계획적으로 커리어를 쌓은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김 소장은 경비원과 같은 직급인 기능직 10급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했다. 이후 그는 가나 아트센터로 직장을 옮겨서 6년간 자료 실장으로 일했고, 김달진미술연구소를 만들면서 독립한다. 1년 뒤인 2002년에 무가지 월간 《서울아트 가이드》를 발간한다. 지속적인 발간은 여러 자료를 또 다시 모으게 된 계기가 됐고, 2008년에는 비로소 미술 자료박물관을 만든다. 홍대에서 4년간 박물관에 세를 들어서 운영하다가 재작년 4월 박물관 규모를 축소해서 홍지동에 정착했다.

아카이브, 국가에서 해야 할 일

2010년 유인촌 문체부 장관 시절, 정부에서 진행한 예술 공간 사업이 있었다. 당시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이 임차지원 사업에 정보센터 열람서비스로 선정돼서 전세금을 지원받아 홍대 쪽으로 박물관을 옮겼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년간을 지원했는데, 박물관에서 연장을 요구하니 국가사업은 일몰제

라면서 만기일이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더는 박물관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재작년 7월 30일, 김 소장은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여태껏 모은 자료 2만 점을 국립 현대 미술관에 기증한다.

“자료는 공적인 재산입니다. 서울시장과 여·야당 의원 가릴 것 없이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결국 잘 안됐어요. 할 수 없이 국립현대 미술관에 자료를 유용하게 써달라고 기증했습니다. 규모를 줄여야 했기 때문이지요.”

기존의 홍대 자료실은 150평 정도였는데, 서울에서 그만한 공간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김 소장은 경기도 여주에 개인 자료 창고인 7평 컨테이너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도 여가저지 자료가 쌓여있다고 한다.

“결국, 물리적인 공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 국가의 지원은 눈에 드러나는 것에 한정돼 있다. 지원 자체를 아무리 중요하게 여겨도 박물관에서 당장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아카이브의 속성과 관계가 있는데, 실제로 많은 미술관의 한 해 예산 중 자료 구매비가 1%도 안 된다. 전시기획이나 작품 구매에는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말이다. 연구하거나 전시할 때는 자료가 필요해서 찾지만, 자료 그 자체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는 아카이브가 안고 있는 숙명이다.

“국가의 프로젝트나 기업의 지원 없이는 아카이브 하는 작업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일입니다.”

여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온 김 소장은 사회에 조금이라도 공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또한 좋아서 한 일이 현재 박물관으로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인자가 되려면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가능하다는 진리를 일깨웠다. **HR**

취재 하태욱 기자 tae@hindsight.co.kr